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경찰청,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단속 지속

- 경찰청은 지난 5개월간(7~11월) 보험사기와 불법사금융, 전화금융사기 등 3대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0,113건에 22,081명을 적발하고, 이 중 623명을 구속한 것으로 보도함.
 - 이는 경기불황이 길어지면서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찰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한 것에 따른 성과임.
- 보험사기 단속결과로는 총 3,844건에 11,545명을 검거(179명을 구속)하였으며, 이는 전년 동기간대비 적발인원이 무려 406%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.
 - 주요 적발유형으로는 위장·고의교통사고를 유발 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허위의 입원확인서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병의원 보험사기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됨.
-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의 적발건수는 총 3,307건으로 나타났으며, 피의자 4,555명 가운데 3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남.
 - 불법사금융의 경우, 지난 5월 경찰청·금감원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단속성과를 극대화한 결과로 전년 동기간대비 64% 증가하였으며, 세부유형별로는 불법대부업(63%), 유사수신 행위(23%), 다단계 행위(14%) 등의 비중 순으로 나타남.
- 전화금융사기(보이스피싱)는 2,318건에 3,302명(구속 365명)이 입건되었으며, 검거인원 가운데 중국, 대만 등 외국인이 12%를 차지하고 단순 대포통장 제공자 외에 송금책·인출책·모집책도 적극검거(16%)하는 등 범죄분위기 차단에 주력함.
- 경찰청은 지난 5개월간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는 일단 제압하였으나, 아직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금융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청별로 ‘금융범죄 전담수사팀’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함.

(경찰, 보험사기·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강력단속,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, 12/17)